

‘오바마 업적 지우기’ 버르는 트럼프

이민자 추방유예·총기규제 등
전 정권 정책들 취임 즉시 폐기
“8년간 경제 성장 방해”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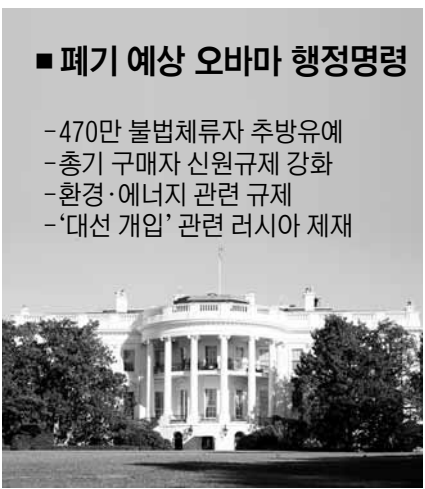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 다수의 오바마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게 실행안이다.

손 스파이서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1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가 취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많은 규제와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행정명령 등이 취임 첫날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에 서명할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과 에너지 규제, 외교 정책에 대



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들 문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를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총기 구매자의 신원규제를 강화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등에 대해 폐기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14년 11월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 등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러시아 외교관 등에 대해 취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제재 행정명령도 폐기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스파이서 내정자는 이와 관련, 러시아가 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단행한 보복 조치에 대해 “외교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이 정도 규모인가. (외교관) 35명이 추방되고 시설 2곳이 폐쇄됐는데 과연 (러시아 측이) 한 행위들에 합당한 대응인가”라고 반문한 뒤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주에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서 내정자는 트럼프가 브리핑을

받은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조치가 합당한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계속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스파이서 내정자는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4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고, 이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반드시 매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리면 반드시 반응이 온다”고 강조했다.

스파이서 내정자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워싱턴 정가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공직자들이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로비스트 규제방안을 “매우 전향적인 생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탄도미사일 발사 임박”
미 국무부 “대가 따를 것” 경고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같이 밝혔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ICBM 개발 및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하게 보여줄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모든 가능한 채널과 수단을 동원할 것을 모든 나라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과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진지한 대화에 복귀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대륙간 탄도로켓(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며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견어치우지’ 않는 한 ‘전체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터키 총기난사범 행방 오리무중...추가 테러 우려



클럽 입구 CC-TV에 잡힌 무장 괴한의 모습.

새해 첫날 39명 사망

새해 첫날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39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총격테러의 범인이 사건 후 하루가 가도록 잡히지 않아 추가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자국민에게 외부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미국 총영사관은 이 성명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인 거주지역과 자주 가는 장소에서 공격을 벌이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이스탄불에서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새벽 1시 15분께 이스탄불 보스포루스해협에 접한 레이나 클럽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현재까지 39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스무명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튀니지, 리비아, 인도, 이스라엘,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온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로 파악됐다.

이스탄불 주재 한국 총영사관도 이날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한인과 여행객은 외국인 출입이 많은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이날 새벽 1시15분께 총격테러가 벌어진 레이나 클럽이 있는 이스탄불 오리타코이 거리는 종일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다. 평소에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차량과 인파로 혼잡을 빚는 곳이다.

한편 미국이 레이나 클럽에서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소문이 터키 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앙카라 주재 미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레이나 클럽을 비롯해 특정 장소에 테러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소문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유송을 건국한 유유

유유(劉裕, 363~422)는 강소성 진강 사람으로 자는 덕여다. 동진의 무장으로 중원 회복을 위한 북벌에 참여했으며 명을 다한 동진 왕조를 멸망시키고 송왕조를 세웠다.

그는 몰락한 관료 집안 출신으로 한 나라 초원왕 유예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 계모 밑에서 어렵게 살았다. 산에서 뿔나무를 구해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나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창쓰기, 칼쓰기, 말타기 등 무예에 뛰어났다. 동진의 양대 주력 군대의 하나인 북부군이 장병을 모집한다는 소문에 지원했는데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북부군의 장군 유뇌지는 그의 용모에서 뛰어난 장수의 자질을 발견했다. 자신의 부하로 거두었는데 전쟁터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군대에서 두

다. 유유는 다행히 숙청을 면하였다. 403년 환현은 안제를 폐하고 황제가 되었다. 국호를 초로 하고 영시로 개원했다.

유유가 입궐하자 환현의 처 유씨는 “유유는 겉음이 용이나 범과 같고, 눈 초리가 범상치 않습니다. 끝내 남의 아래에 있지 않을가 두렵습니다. 일찍 제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환현은 “관중과 황하 정벌이 평정되기를 기다린 연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며 거절했다. 천원이 있어 그가 명을 보존한 것이다. 그는 하루기 등과 함께 비밀리에 진 황실의 부흥을 모의했다.

404년 환현을 토벌하는 군사를 일으켜 북주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405년 황실을 다시 세웠다. 환현은 서쪽으로 도망쳐 강릉으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405년 유유는 반란 평정의 공으로 양주·형주·서주 등의 군

고아에서 황제까지...중국관 ‘거위의 꿈’

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장령, 사마, 잠군으로 승진하고 유뇌지의 심복이 되었다. 유뇌지는 북부군의 총수인 왕공의 휘하에 있었는데 왕공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398년 북부군의 군단장이 되었다. 399년 손은의 난이 발생했다. 당시 동진 조정의 실력자 사마원현은 동부 연안지방의 소작인을 대거 징집해 병역에 복무토록 했는데 이에 반발해 난을 일으킨 것이다. 손은의 군대는 강력한 수군을 갖고 있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 수도인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기세를 올렸다. 손은군 격퇴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유유였다. 그에 대해서는 사서에 “용감하고 강건했으며 큰 뜻이 있었다. 겨우 글자를 알 정도였다. 신을 삼아 파는 것을 생업으로 했으며 노름을 좋아하여 고향 이웃 사람들이 천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북부군과 비슷한 세력을 가진 서부군은 환현이 통솔했다. 그는 왕위창달에 실패했던 환온의 아들이다. 조정의 실력자 사마원현은 스스로 정도대도독이 되고 유뇌지를 천봉도독으로 임명해 환현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유뇌지가 남벌래 환현과 공모하는 바람에 환현은 건강에 쳐들어가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로 인해 북부군 주요 간부가 대거 몰락했

사대권을 장악하는 도독으로 임명되었다. 동진 조정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것이다. 409년 화북 일대를 노략질한 남연을 북벌하여 멸망시켰다. 이를 계기로 청주·익주 자사를 겸하게 되었다. 411년 손은의 매부인 노순이 광주에서 역모를 꾀하자 이를 다시 정벌했다. 네 살짜리 유아인 유의를 직접 데리고 전투를 지휘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태위중서감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상 동진 정권의 정치·군사 대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417년 북벌을 단행해 낙양과 장안을 정벌해 후진의 효흥의 회복을 받아냈다.

418년 유유는 상국으로 임명되고 송공으로 칭해졌다. 신하 최고의 명예인 구족의 명도 받았다. 미래를 예언하는 글에서 “아직 두 황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중서시랑 왕소지를 시켜 안제를 목졸라 죽이고 양왕왕 사마덕문을 공제로 옹립했다. 420년 공제는 좌우 신하에게 “환현때 진나라는 이미 천하를 잃었는데 유공 때문에 20년 더 연장 받게 된 것이다. 오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건강을 도읍으로 세 왕조를 세웠다. 의부를 황태자로 삼았다. 뒷날의 송왕조와 구별하여 유송이라고 불리운다. 422년 병사해 세째 아들 유의가 뒤를 이으니 문제다.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상가 매매 전문

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점)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문헌)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 매가 22억

④ 수가동 제인오피스텔 6층
(전면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원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 매가 1억4천만 (용5천)

⑤ 상무지구 오피스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 매매 6천9백만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춘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번화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전남 장성 삼성 (의료시설)
토 3,492평 건 1,734평
상무대 입구 /6차선 도로 접
전 요양병원 운영
▶감정가 48억 → 최저가 21억9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립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남구 월산동 (상가주택)
토 58평, 건 103평
1층 (상가 22칸) 2층 (주택)
월산사거리 인근 / 2차선 포장도로 접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 나주시 석현동 (2층 식당)
토지 551평, 건 239평
동신대학교 3분 거리
식당 최고 위치 / 주차완비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9천

첨단지구 식당 임대

* 평수 120평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

★ 보 1억
월 30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6670-9800